

- 주요 뉴스: 미국 11월 뉴욕 연은 설문조사,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작년 8월 이후 최저
 - ECB, 역내 은행의 신용위험 및 분산투자 현황을 강도 높게 확인할 방침
 - 국제에너지기구(IEA), EU는 내년에 가스부족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
 - 중국,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미국을 WTO에 제소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12월 FOMC에서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주가 상승[+1.4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상승[+3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 등이 배경
 유로 Stoxx600지수는 ECB의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0.5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그 동안의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유입 등이 반영
 유로화가치는 약보합, 엔화는 0.8% 절하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신규 입찰에서의 수요 부진 등이 원인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05.7원, -1.6원) 약보합, 한국 CDS 하락

주요지표					주요지표				
		12/12일	12/9일	전일대비			12/12일	12/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90.6	3,934.4	1.43%	국채금리 10y	미국	3.61%	3.58%	3bp
	유럽	436.98	439.13	-0.49%		독일	1.94%	1.93%	1bp
	중국	3,179.0	3,207.0	-0.87%		영국	3.20%	3.18%	2bp
	일본	27,842	27,901	-0.21%	CDS 5y	한국	53bp	54bp	-1bp
	한국	2,373.0	2,389.0	-0.67%		중국	74bp	75bp	-1bp
환율	달러지수	105.04	104.81	0.22%	위험지표	EMBI+	-	376	-
	유로화	1.0537	1.0540	-0.03%		VIX	25.00	22.83	9.51%
	엔화	137.67	136.56	-0.81%		WTI유	73.17	71.02	3.03%
	위안화	6.9776	6.9584	-0.28%	원자재	구리	379.5	387.6	-2.09%
	원화	1,307.2	1,301.3	-0.45%		금	1,781.4	1,797.3	-0.88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1월 뉴욕 연은 설문조사,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작년 8월 이후 최저

-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5.2%를 나타내 전월(5.9%) 대비 하락. 이는 작년 8월 이후 최저 수준. 아울러 3년 및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도 모두 전월 대비 낮은 수준(각각 3.1%→3.0%, 2.4%→2.3%)
- 이번 결과는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(2%)에 근접하고 있음을 의미. 기대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큰 폭 하락 등에 기인.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늘어난 점도 또 다른 요인. 향후 1년 동안 주택가격 변동률의 중위값은 전월 대비 급락(2.0%→1.0%)
- 최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낙관적인 시각이 점차 확산. 다만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가 물가안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가 필요.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 시 물가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
- 한편 1년 후 예상 가계소득 증가율은 4.5%를 나타내 전월(4.3%) 대비 상승.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, 연간 임금이 결정되는 내년 1~2월은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(Jefferies)
- 옐런 재무장관 역시 예상하지 못한 충격만 없다면 내년 말 인플레이션 수준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. 향후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Morgan Stanley와 Goldman Sachs, 증시의 핵심 위험은 기업실적 부진 가능성

- 주가는 결국 기업실적에 좌우되는데, 지금은 향후 실적전망이 너무 높게 추정(Morgan Stanley의 Michael Wilson). 내년 기업이익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, 내년 말 S&P500 지수는 3,900을 예상(Goldman Sachs의 David Kostin)

■ 미국 11월 재정수지,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. 교육 및 공중보건 지출이 대폭 증가

- 11월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연초 대비 570억달러 증가한 2490억달러를 기록. 개인 원천징수액이 4% 감소하고 개인 세금 환급액이 64% 증가하는 등 재정수입이 줄어든 반면 교육, 보건 분야의 지출이 증가한 점 등이 원인

■ ECB, 역내 은행의 신용위험 및 분산투자 현황을 강도 높게 확인할 방침

- 에너지 및 에너지 매매 등 취약한 부문에 노출이 많은 은행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, 모기지 및 상업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계획. 고금리, 성장둔화 등이 향후 은행들의 대출 능력을 저해할 소지

■ 국제에너지기구(IEA), EU는 내년 가스부족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

- EU가 금년 겨울에는 충분한 가스를 확보한 상태이나 내년에도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이 지속되면 부족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. 이에 각국 정부는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

■ 중국,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미국을 WTO에 제소

- 중국 상무부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. 이는 중국이 관련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자국의 무역 행동이 합법적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
-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, 이날 네덜란드와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들을 중국에 수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미국의 방침에 동참하기로 합의. 향후 중국이 자체적으로 최첨단 산업역량을 구축하기가 어려워질 전망(Sanford C. Bernstein)

■ 중국 11월 신규 은행대출, 예상치 하회. 코로나 변이 등이 영향

- 11월 신규 은행대출은 전월비 1.21조위안 증가하여 10월(0.62조위안) 대비 높은 수준이나 예상(1.35조위안) 대비로는 적은 편.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출 요청이 예상보다 소극적(Huachuang Securities)
- 다만 최근 중국 정부는 방역 완화에 초점.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방역 조치의 추가 완화가 진행될 것이며, 외국과의 이동도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2/12 현지시각 기준)

- 영국 10월 성장률(전월비): 0.5%, 9월(-0.6%), 예상치(-0.1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13 현지시각 기준)

-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강연, 미국 및 독일 11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선진국들의 저성장 기조, 구조조정 기피 등으로 고착화될 전망 - The Economist

(How the West fell out of love with economic growth)

- 과거 대비 선진국들이 성장보다 안보 등에 초점을 두고 좀비기업들을 유지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꺼리면서 향후 1인당 GDP 성장률이 2%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
- 선진국 정치인들의 친성장 공약 비중도 1980년대 대비 절반에 불과한데 이는 관세 및 이민 반대 등의 반성장 정책들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(Manifesto Project). 그러나 이는 자유로운 무역과 인적 교류에 따른 성장을 제약
- 향후에도 막대한 부채 등으로 구조개혁이 어려워지고,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부담 확대 등이 정부의 R&D 지출을 대체해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

■ EU,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관련 진통이 예상 - Financial Times

(EU struggles to counter Joe Biden's big green push)

-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 외교적 대응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각국의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를 고려. 그러나 EU와 WTO 모두 역내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의 기업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
- 이에 청정에너지 관련 한시적인 보조금 규정 완화와 이를 통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. 또한 EU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3,500억유로 규모의 녹색전환(green transition)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 가능성을 언급
- 다만 공동부채를 통한 기금마련은 역내 경쟁력 및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일 등 재정 관련하여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할 소지

■ 중국의 방역규제 완화, 경기회복 기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 - Financial Times

(Beijing eases zero-Covid restrictions on transport to revive economy)

- 그간 중국 곳곳의 도로와 항구 등지에서는 운전자의 PCR 음성검사 결과지 제출을 요구하는 수많은 검문소들로 화물의 흐름이 혼잡해지고 경제 회복도 지연
- 이에 최근 국무원은 경기 회복을 위해 장거리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을 폐쇄루프 방식 적용 및 지속적인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발표
- 부족한 의료인프라 및 낮은 노년층 예방접종률 등을 감안 시 최근 방역 정책의 급격한 선회가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져 단기적 측면에서 오히려 경기 하방압력이 강화될 우려(HSBC의 Jing Li)

■ 미국 연준, 물가목표를 기존보다 높게 설정할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Next year's unpleasant choices confronting the Fed)

- 연준은 '12년 이후 2%의 물가목표를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. 주의해야 할 사안은 최근 물가상승 압력에서 에너지와 식료품보다는 임금과 서비스 부문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
- '23년말까지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의 상승률은 4% 이상까지 오를 수 있으며, 이는 연준의 물가목표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. 이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연준이 실제로는 물가목표 수준을 상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
- 아울러 향후 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, 연준의 물가목표 재설정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소지

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. 최대 수혜국은 홍콩·태국·싱가포르 등이 될 전망 - 블룸버그

(China Reopening May Boost Hong Kong's GDP by 7.6%, Goldman Says)

- 중국의 방역규제 완화로 홍콩의 수출 및 관광 수입이 증가하면서 GDP의 7.6%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(Goldman Sachs). 홍콩만큼은 아니지만 태국(2.9%), 싱가포르(1.2%), 말레이시아(0.7%) 등도 수혜가 예상
- 이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내수가 5.0%p 증가하고 해외여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가정에 근거한 추정치로, 주변국의 관광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고 상품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

■ 미국 물가연동국채의 인플레이션 해지 가능 저하, 고물가빠른 금리인상에 기인 - 블룸버그

(Inflation Was So Bad That It Even Crushed Inflation-Linked Bonds)

■ 미국 주택건설, 모기지 금리 안정 등으로 내년 하반기 반등 예상 - 블룸버그

(Homebuilders Buy Time With Huge Pandemic Backlogs)

■ 미국의 반도체 법안, 대만 경제 약화를 초래하여 중국 위협 대응에 부정적 - Financial Times

(The west should not walk into Beijing's Taiwan trap on chip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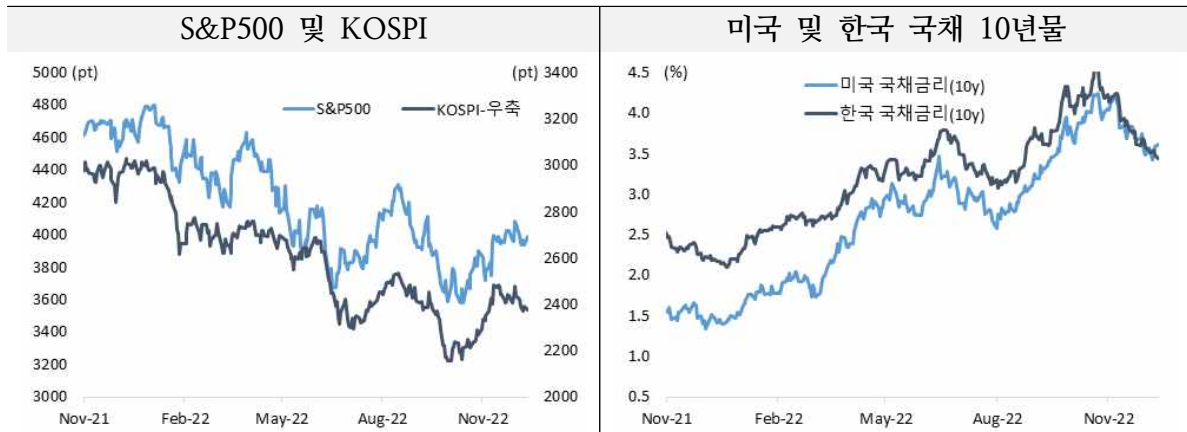
■ 러·우 전쟁, 평화협정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Ukraine and the shadow of Korea)

■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, 저가의 이점 때문에 상당 기간 지속될 소지 - 블룸버그

(Can Europe's Energy Bridge to Russia Ever Be Rebuilt?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